

# ‘필승 카드’ 손흥민 활용법 고민

한국축구, 오늘 오후 11시 쿠웨이트와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

## 홍명보 “최종 훈련 마치고 면담…대화로 풀것” 부상 부담, 전체적인 상황 고려 출전 시간 결정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을 하루 앞두고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활용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명보 감독은 13일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전은 중동 원정 2연전의 첫 경기인 만큼 대표팀에 중요하다”라며 “승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 경기까지 이겨서 11월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다.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좋은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11시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5차전을 펼친다.

우리나라는 쿠웨이트와 역대 전적에서 12승 4무 8패로 앞서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허벅지 부상으로 지난 10월 A매치 일정을 휴양보호와 함께하지 못한 손흥민의 몸 상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 감독 역시 지난 11일 쿠웨이트에 도착한 뒤 “손흥민의 몸 상태는 대표팀에 중요하다. 건강한 손흥민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대로 면담을 통해 출전 시간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홍 감독은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근했다.

홍 감독은 “다른 선수들보다 하루 늦게 현지에 도착해 회복 훈련에 집중했다. 오늘 공식 훈련을 치른 뒤 손흥민과 내일 경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오늘 훈련을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이 지난 주말 소속팀에서 90분 풀타임 출전하고 대표팀에 합류했다”라며 “손흥민은 부상 상황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팀 역시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고 온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출전 시간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황인범(페예노르트)은 “이번 중동 원정 2연전에서 반드시 승점 6을 따겠다”라며 “두 차례 경기 모두 중요하지만 첫 번째 경기인 쿠웨이트전 승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 2연전을 펼치는 만큼 회복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인범은 손흥민에 대해서도 “선수들 입장에서 팀의 주장이자 세계적인 팀에서 뛰는 손흥민의 합류는 든든하다”라며 “다만 손흥민도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들의 역할은 어떤 선수가 빠지든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팀으로 잘 준비하고 뛰는 것이다. 10월에도 잘 해냈다. 누가 출전하든 팀으로서 경기를 잘 치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쿠웨이트 암달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리프팅을 하고 있다. 이날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가 모두 쿠웨이트에 도착하면서 완전체로 첫 훈련을 했다. /연합뉴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왼쪽)과 유승형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13일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생명사랑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시민 건강 증진 ‘생명사랑’ 맞손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생명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

광주시체육회는 13일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유승형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양 기압증 ▲스트레스 ▲자살적도 검사 등을 시행하며, 향후 검사를 선수, 지도자, 동호회원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체육회와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

한 교육과 홍보 활동 ▲정신건강 관련 강의와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체육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연계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갑수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회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동호인들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주시체육회는 시민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과 생명 사랑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팀코리아, 본선 1R 자동 진출...일본·호주와 C조 편성

2026 WBC 예선 일정 발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진출권 4장을 놓고 경쟁할 예선라운드 일정이 나왔다.

WBC 사무국은 13일 예선라운드 참가 팀과 경기 장소 등을 발표했다.

2026 WBC 예선라운드에서는 2023 WBC 본선 1라운드에서 조 최하위에 머문 대만, 중국, 콜롬비아, 니카라과와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브라질, 독일이 경쟁한다.

대만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카라과는 내년 2월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돔에서, 콜롬비아, 중국, 브라질, 독일은 내년 3월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풀리그 형식으로 겨룬다.

각 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2026 WBC 본선라운드 일정 (WBC 홈페이지 캡처)

1개 팀은 본선 라운드에 직행하고 2, 3위 팀은 본선 진출 결정전을 한번 더 치른다. 한국은 2023 WBC 본선 1라운드

B조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각 조 4위까지 주어지는 2026 WBC 본선 1라운드 직행 티켓은 얻었다.

한국은 2026 WBC 본선 1라운드 C조에서 일본, 호주, 체코, 그리고 예선 라운드를 통과한 1개 팀과 경쟁한다. /연합뉴스



지난 3월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팀코리아와 샌디에이고(SD) 파드리스의 미국프로야구(MLB) 서울시리즈 연습경기를 마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과 팀 코리아 김혜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혜성, 인기있는 준척급 FA” “김하성, ‘?’ 있어도 다년계약가능”

ESPN 전망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타자 부문을 분석하며 김혜성(25)을 ‘준척급’, 김하성(29)을 ‘물음표가 달린 타자’로 분류했다.

ESPN은 13일 FA 타자 시장을 조명하며 후안 소토를 최대어, 윌리 아다메스, 알렉스 브레그먼, 피트 알론소를 ‘대어급’으로 평가했다.

이들의 이름 아래에 김혜성이 자리했다. 김혜성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안토니 산탄데르, 크리스천 위커, 유릭슨 프로파르, 타일러 오닐, 잭 피더슨과 함께 준척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스톡업 히터(Stock-up hitters)로 묶였다.

ESPN은 “내야수 김혜성은 KBO리그 8시즌 통산 타율 0.304를 찍었다. 2025시즌에 26살이 돼 전성기를 맞이할 ‘올라운드 플레이어’ 김혜성은 매력적인 매물”이라며 “김혜성은 유격수로

된 경험을 갖춘 2루수이며 지난해 30도루, 통산 211도루를 성공하고 최근 4년 연속 0.300 이상의 타율을 올렸다. 올 시즌에는 개인 최다인 11홈런을 쳤다. 인기 있는 준척급 타자”라고 소개했다.

MLB 사무국은 이미 지난 달 31일 김혜성의 신분을 조회했다.

ESPN은 4년 동안 빅리그를 누빈 유격수 김하성을 ‘물음표가 달린 타자’로 분류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전별금’인 바이아웃 200만달러를 받고 FA 시장에 나왔다. ESPN은 “김혜성은 공을 던지는 팔의 관절와순(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아 포스트시즌에 뛰지 못했다”고 짚으며 김하성을 다소 낮은 등급에 묶었다. 하지만 “김하성은 고액의 1년 계약을 하고서 다시 FA 시장에 나갈 수 있지만, 어깨 부상에도 김하성에게 다년 계약을 제시하는 구단이 있을 것이다. 김하성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도 했다. /연합뉴스



오타니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상 첫 ‘50-50’ 오타니, 역대 두 번째 양대리그 MVP 도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한 시즌에 홈런 50개와 도루 50개를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2024시즌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에 선정됐다.

MLB 사무국은 13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MVP와 신인상, 사이영상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내셔널리그 MVP 후보로는 오타니

외에 프란시스코 린도르(뉴욕 메츠), 케벨 마르테(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이름을 올렸다.

오타니는 이번 시즌 홈런 54개, 도루 50개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50-50을 기록했다.

오타니는 LA 에인절스에서 뛰던 2021년과 2023년에 지명 타자와 선발 투수를 겸업해 아메리칸리그 MVP에 뽑

힌바 있다. 올해 오타니가 내셔널리그 MVP가 되면 메이저리그 사상 두 번째로 양대 리그 MVP에 모두 선정되는 기록을 남긴다.

양대 리그 MVP에 모두 선정된 최초 사례는 프랭크 로빈슨으로 그는 1961년 신시내티 레즈, 1966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양대 리그 MVP를 석권했다. /연합뉴스